

교육대학교 학생의 성격 5요인에 기초한 잠재적 성격 특성 유형과 심리적 안녕감,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이명숙¹, 최효식², 연은모^{3*}

¹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²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³영남대학교 교양학부

Relationships Among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ollege Adaptation of Pre-service Teachers

Myung-Sook Lee¹, Hyo-Sik Choi², Eun-Mo Yeon^{3*}

¹Department of Education,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²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³College of Basic Studies, Yeungnam University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성격 5요인에 기초하여 교육대학교 학생의 잠재적 성격 특성 유형을 확인하고, 성격 특성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A 교육대학교 1~4학년 1,295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교육대학교 학생의 잠재적 성격 특성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분류된 성격 특성 잠재 집단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대학생활적응 차이 검증을 위해 다변량분산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교육대학교 학생의 성격 특성은 신경과민성,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의 다중 속성에 의해 (1) 높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신경과민성 하, 나머지 성격 요인 상), (2) 중간 수준의 적응적 성격(성격 5요인 모두 중), (3) 낮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신경과민성 상, 나머지 성격 요인 하)의 세 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집단에 따라 성격 5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높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이 중간과 낮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보다, 중간이 낮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보다 신경과민성은 낮고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성격 특성 잠재 집단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과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높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은 중간과 낮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보다, 중간은 낮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과 대학생활적응 하위 요인 모두에서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교육대학교 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성격 특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교육대학교 학생의 행복한 대학생활을 위해서는 성격 특성을 고려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o extend the potential benefits of error, the current study examined factors that affect students' error perception in the classroom. An experimental design was used to measure relations of classroom goal structure, feedback, and social relationships on students' perception of error. A total of 316 fourth-, fifth-, and sixth-grade elementary students participated as part of their regular class curriculum.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measure students' perception of errors and relationships with teacher and peers, and then students were manipulated by classroom goal structure and feedback.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uggested that students' perception of learning from error was affected mostly by relationships with peers, followed by relationships with teacher and the type of feedback. Students' perception of risk taking for error was also affected by relationships with peers and teacher, followed by the classroom goal structure. However, classroom goal structure and feedback did not affect their perception of thinking about error to improve their learning as well as error strain. These results imply how the classroom climate should be structured to improve perception of errors to improve student's learning.

Keywords : Personality Traits, Psychological Well-Being, Adjustment to College, Pre-Service Teachers, Latent Profile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Eun-Mo Yeon(Yeungnam Univ.)

Tel: +82-53-810-7832 email: emyeon@ynu.ac.kr

Received October 8, 2018

Revised November 7, 2018

Accepted March 8, 2019

Published March 31,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성격은 개인의 심리, 정서, 행동 특성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1]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개인 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2]. 성격의 중요성 때문에 성격의 개인차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대학교 학생의 성격과 심리적 특성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대학교 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대학생활적응은 자신뿐 아니라 미래의 교사로서 초등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에 기초하여 교육대학교 학생의 잠재적 성격 특성을 확인하고, 성격 특성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성격이론 중 하나는 5요인 성격이론(five factor theory: FFT)이다. 5요인 성격이론은 삶, 학교, 직장 등의 다양한 영역의 개인차 특성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성격의 5요인은 개인의 정서, 행동, 인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해의 틀을 제공해 준다[5-6]. McCrae와 Costa(2008)에 따르면 5요인 성격 특성은 행동과 경험의 직접적, 간접적 결정인자이다. 성격의 5요인 이론은 성격을 (1) 신경과민성(Neuroticism), (2) 외향성(Extroversion), (3) 개방성(Openness), (4) 우호성(Agreeableness), (5) 성실성(Conscientiousness)의 요인 구조로 설명하고 있으며, 5요인이 인간의 사고, 행동, 정서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6-7].

신경과민성은 불안, 긴장,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성격특성이며, 외향성은 사회성, 긍정 정서, 주장성과 같은 사회성과 관련된 성격특성이며, 개방성은 상상력, 호기심과 같은 지적 자극을 추구하고 다양성과 새로운 것에 개방적인 성격 특성이며, 우호성은 공감, 이타성과 같은 협력적이고 친사회적인 성격특성이며, 성실성은 자기조절, 책임감, 성취지향과 같은 근면하고 사회적 규칙과 원칙을 잘 지키는 성격 특성과 관련된다[8-10]. 성격의 5요인은 주관적 안녕감[11], 우울[12], 성취목표지향성[13], 자아탄력성[14], 학업 소진[15], 학업 성취[16] 등의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안녕감은 긍정적 속성과 관련된 개념으로[17],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과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PWB)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18-19]. 주관적 안녕감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삶의 만족과 관련된 삶의 행복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면, 심리적 안녕감은 단순히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삶의 만족의 결합 이상의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며, 구체적으로 사회 속에서 구성원으로 잘 기능하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 심리의 합을 의미한다[20-21]. Ryff(1989)은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이 자아수용,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의 6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21]. 심리적 안녕감은 회복탄력성[22], 조직몰입[23], 심리 문제[24]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스트레스 대처전략[25], 낙관성[26] 등이 보고되고 있는데, 성격 또한 심리적 건강(웰빙)의 중요한 예측인자이다[27]. 선행연구는 성격 5요인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보다 성격 5요인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가 더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다[28].

대학생활적응은 학업과 대학 문화 및 생활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으로[29-30], 학업수행을 증진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인생 설계 및 사회진출을 위해 준비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중요하다[31-32]. 선행연구들은 대학생활적응이 회복탄력성[33], 진로정체감[34], 스트레스[35], 성취목표지향성[30], 스마트폰 중독[36], 대인관계능력 및 사회적지지[37], 자아탄력성[38], 자기통제력[39], 가족체계[40], 자아존중감[41], 자기효능감[42] 등의 다양한 개인 변인 및 환경 변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성격이 학업성취[16], 자기효능감[43], 스트레스[44], 성취목표지향성[13]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성격 또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과 심리적 특성,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대다수 연구들이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등을 활용한 변인과 변인 간 영향 관계를 찾는데 초점을 둔 변인 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 방법을 사용한 것과 달리[45], 본 연구에서는 개인 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 방법인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활용하여 성격 5요인에 기초한 잠재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갖는 집단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둘째,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성격과 개인 특성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교육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초등 교육을 담당하게 될 예비교사인 교육대학교 학생의 성격 특성을 확인하고, 성격 특성과 심리적 안녕감 및 대학생활적응 간 관련성에 대한 경험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격 5요인에 기초하여 교육대학교 학생의 잠재적 성격 특성 유형을 확인하고, 성격 특성 잠재 집단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1) 신경과민성,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의 성격 5요인에 따라 동일한 특성을 갖는 잠재 집단을 확인한다.
- 2) 분류된 성격 특성 잠재 집단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적용하여 성격 특성의 동질성에 따라 교육대학교 학생을 유형화하고, 분류된 성격 특성 잠재 집단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은 A 교육대학교 2014학번 학생 415명, 2015학번 학생 410명, 2016학번 학생 409명, 2017학번 학생 411명의 전체 총 1,645명 이었으며, 이 가운데 응답치가 없는 응답지를 제외하고 1,29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성격 5요인

교대 학생들의 성격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격 5요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성격 5요인 검사는 Goldberg(1999)의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를 이영란

(2006)이 활용한 50문항을 사용하였다[46-47]. 신경과민성,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의 각 10문항을 측정하는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시는 신경과민성 ‘거의 언제나 느긋한 편이다.’, 외향성 ‘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개방성 ‘상상력이 풍부하다.’, 우호성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성실성 ‘항상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이다. 신뢰도 지수인 Cronbach α 는 신경과민성 .849, 외향성 .860, 개방성 .751, 우호성 .849, 성실성 .762이고, 전체 신뢰도는 .855로 확인되었다.

2.3.2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Ryff와 Keyes(1995)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의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48-49]. 본 연구에서는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에서 사용한 46문항 중 문항 제거 시 요인별 신뢰도, 문항-총점 간 상관, 요인부하량 측면에서 문항분석을 실시한 후 30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하위요인별로 5개 문항씩 총 3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 방식은 아주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시는 ‘지금의 나의 모습에 만족한다.’(자아수용),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긍정적 대인관계), ‘어떠한 일이든 스스로 결정하는 편이다.’(자율성), ‘시간을 계획하여 제 때에 잘 처리한다.’(환경에 대한 통제력),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다.’(삶의 목적), ‘나에게 있어서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개인적 성장)이다. 신뢰도 지수인 Cronbach α 는 자아수용 .867, 긍정적 대인관계 .860, 자율성 .758, 환경에 대한 지배력 .827, 삶의 목적 .824, 개인적 성장 .841로 나타났다.

2.3.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tryk(1989)

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49]. 대학생활적응척도는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환경 적응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적 적응 15문항, 사회적 적응 13문항, 개인-정서적 적응 9문항, 대학환경 적응 7문항의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시는 학업적 적응 ‘대학에서 학업을 잘 해 나가고 있다.’, 사회적 적응 ‘대학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생활에서 자주 긴장하거나 신경이 예민하다.’, 대학환경 적응 ‘우리 대학의 환경에 잘 적응한다.’이다. 신뢰도 지수인 Cronbach α 는 학업적 적응 .826, 사회적 적응 .798, 개인-사회적 적응 .651, 대학환경 적응 .808로 나타났다.

2.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7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 일부를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교육대학교의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설문 조사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을 위해 SPSS 20.0과 Mplus 7.1[5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에 기초하여 해석하였다. 둘째, 성격 특성에 따른 잠재계층을 확인하기 위해 관찰 변인이 연속 변인일 경우에 사용하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 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해 AIC, BIC, aBIC, Entropy, LMR, BLRT, 분류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프로파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표준화 점수인 Z점수를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잠재 집단 간 프로파일 차이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Z점수를 사용하였다. 셋째, 분류된 성격 특성 잠재 집단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대학생활적응 차이는 다변량분산분석(MANOVA)방법에 기초하여 확인했으며, 사후검증 방법으로 Scheffé 검증을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 865명(66.8%), 남학생 426명(32.9%) 무응답 4명(3.3%)이며, 학년은 1학년 350명(27.0%), 2학년 357명(27.6%), 3학년 326명(25.2%), 4학년 246명(19.0%), 무응답 16명(1.2%)이다. 전공은 초등과학 94명(7.3%), 초등교육학 101명(7.8%), 초등국어 92명(7.1%), 초등미술 75명(5.8%), 초등사회 93명(7.2%), 초등수학 99명(7.6%), 초등실과 93명(7.2%), 초등영어 179명(13.8%), 초등윤리 85명(6.6%), 초등음악 95명(7.3%), 초등체육 94명(7.3%), 초등컴퓨터 107명(8.3%), 초등특수 75명(5.8%), 무응답 13명(1%)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95)

Variables	Category	n	%
sex	female	865	66.8
	male	426	32.9
	unknown	4	.3
grade	freshmen	350	27.0
	sophomore	357	27.6
	junior	326	25.2
	senior	246	19.0
	unknown	16	1.2
major	science education	94	7.3
	education	101	7.8
	korean education	92	7.1
	art education	75	5.8
	social education	93	7.2
	math education	99	7.6
	practical arts education	93	7.2
	english education	179	13.8
	moral education	85	6.6
	music education	95	7.3
	physical education	94	7.3
	computer education	107	8.3
	special education	75	5.8
unknown	13	1.0	

3.2 성격 5요인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

3.2.1 잠재 집단의 수 결정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성격 5요인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015 ~ .339, 첨도는 -.151 ~ .373으로 확인되어 정규성 가정이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격 5요인의 5개 하위요인을 투입하여 조건모형을

Table 2. General model fit statistics for the latent profile analysis of the big five traits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95)

Model	Log Likelihood	AIC	BIC	aBIC	Entropy	LMR (p)	BLRT (p)
1	-9185.124	18390.247	18441.910	18410.145	N/A	N/A	N/A
2	-8480.317	16992.634	17075.294	17024.470	.790	.0000	.0000
3	-8259.144	16562.289	16675.947	16606.064	.838	.0000	.0000
4	-8206.594	16469.188	16613.843	16524.901	.863	.0192	.0000
5	-8157.454	16382.907	16558.561	16450.559	.886	.0388	.0000
6	-8122.888	16325.775	16532.426	16405.366	.885	.0012	.0000

설정된 후 AIC, BIC, aBIC, Entropy, LMR, BLRT, 분류의 질에 기초하여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였다. AIC, BIC, aBIC는 값이 적을수록 높은 적합도를 의미하는데,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AIC, BIC, aBIC 값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집단 분류의 질을 보여주는 Entropy는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적합도를 의미하는데, 잠재집단이 5개와 6개일 때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모형비교검증을 보여주는 LMR은 잠재집단이 2개에서 3개로 증가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며, 모형 잠재집단이 3개에서 4개, 4개에서 5개, 5개에서 6개로 증가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BLRT 또한 잠재집단이 증가할수록 계속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잠재집단 분류율의 경우 집단 분류율이 5% 미만으로 나올 경우 너무 많은 잠재집단을 분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51]. 이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잠재집단이 4개에서 6개인 모형은 잠재집단의 분류율이 5% 미만인 집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 상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지수,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대 학생들의 성격 5요인의 가장 적절한 잠재집단 수를 3개로 결정하였다.

Table 3. Classification posterior probabilities for the six profile solution (%)

Model	posterior probabilities of classes(%)					
	1	2	3	4	5	6
1	100					
2	40.5	59.5				
3	5.8	42.3	51.9			
4	1.6	5.8	40.3	52.3		
5	1.1	1.7	6.2	40.3	50.7	
6	1.0	1.4	1.9	6.1	38.9	50.7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확인된 잠재집단의 특성은 [Table 4] 와 같다. 잠재계층1은 신경과민성이 0표준편차 위이며,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이 0표준편차 아래에 속하는 유형으로, 낮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잠재계층2는 신경과민성이 0표준편차 아래이며,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이 0표준편차 위에 속하는 유형으로, 중간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잠재계층3은 신경과민성이 1표준편차 아래이며,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이 1표준편차 위에 속하는 유형으로, 높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latent profiles

	Class 1: low-adaptive profile n=672(51.9%)		Class 2: moderate profile n=548(42.3%)		Class 3: well-adaptive profile n=75(5.8%)	
	M	SD	M	SD	M	SD
Neuroticism	.38	.87	-.30	.91	-1.21	1.05
Extroversion	-.66	.64	.57	.74	1.71	.66
Openness	-.50	.79	.37	.81	1.71	.84
Agreeableness	-.68	.68	.58	.63	1.82	.51
Conscientiousness	-.60	.69	.45	.71	2.04	.65

3.2.2 잠재 집단 간 차이 비교

잠재 집단에 따른 성격 5요인의 평균 점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먼저, 공분산 행렬 동질성에 대한 Box 검정 결과, 동질성 가정이 성립되지 않아 ($F_{(30, 136784.68)}=2.68, p<.001$), 다변량 통계치로 Pillai의 트레이스 값을 사용하였다[52]. 세 개의 잠재 집단(집단 1: 낮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 집단 2: 중간 수준

의 적응적 성격 집단, 집단 3: 높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에 따라 성격 5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Pillai's Trace=.86, $p<.001$), 단변량 분석결과 신경과민성,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모두에서 평균 점수 차이가 확인되었다. 사후검증 실시 결과, 신경과민성,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모두에서 모든 집단 간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Table 5. Multivariate ANOVA comparisons of the three latent profiles representing Big Five personality traits

IV	DV	Pillai's Trace	F	df	Scheffé
Latent Classes	Neuroticism	.821***	158.12***	2	③<②<①
	Extroversion		736.83***	2	①<②<③
	Openness		357.99***	2	①<②<③
	Agreeableness		879.21***	2	①<②<③
	Conscientiousness		676.67***	2	①<②<③

* $p<.05$, ** $p<.01$, *** $p<.001$

3.2.3 잠재 집단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대학생활 적응 차이 검증

잠재 집단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대학생활적응의 평균 점수 차이 확인을 위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먼저, 공분산 행렬 동질성에 대한 Box 검정 결과, 동질성 가정이 성립되지 않아(심리적 안녕감: $F_{(42, 131294.19)}=6.01$, $p<.001$, 대학생활적응: $F_{(20, 136109.53)}=4.40$, $p<.001$), Pillai의 트레이스 값을 단변량 통계치로 사용하였다[52]. [Table 7]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잠재계층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illai's Trace=.422, $p<.001$). 단변량 분석결과 여섯 개의 하위 변인 모두에서 유의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확인되었다. 사후검증 실시 결과, 여섯 개의 하위 변인 모두에서 잠재 집단3(높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이 잠재 집단2(중간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와 잠재 집단1(낮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 잠재 집단2(중간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는 잠재 집단1(낮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 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잠재 집단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illai's Trace=.340, $p<.001$). 단변량 분석결과 네 개의 하위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실시 결과, 네 개의 하위 변인 모두에서 잠재 집단3(높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이 잠재 집단2(중간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와 잠재 집단1(낮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 잠재 집단2(중간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는 잠재 집단1(낮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 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f three latent profiles representing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ollege adaptation

Variables	Latent Classes	N	M	SD	
Psychological Well-being	Self-Acceptance	Class 1	663	3.40	.66
		Class 2	543	3.99	.56
		Class 3	75	4.61	.59
	Positive Relations	Class 1	663	3.75	.59
		Class 2	543	4.39	.44
		Class 3	75	4.83	.30
	Autonomy	Class 1	663	3.62	.53
		Class 2	543	4.07	.46
		Class 3	75	4.71	.34
Environmental Mastery	Class 1	663	3.37	.60	
	Class 2	543	3.90	.54	
	Class 3	75	4.60	.48	
Purpose in Life	Class 1	663	3.41	.58	
	Class 2	543	3.95	.52	
	Class 3	75	4.71	.36	
Personal Growth	Class 1	663	3.51	.61	
	Class 2	543	4.09	.52	
	Class 3	75	4.74	.38	
College Adaptation	academic adjustment	Class 1	636	3.07	.39
		Class 2	527	3.41	.46
		Class 3	72	3.89	.66
	social adjustment	Class 1	636	3.21	.44
		Class 2	527	3.66	.41
		Class 3	72	4.11	.51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Class 1	636	3.08	.42
		Class 2	527	3.40	.42
		Class 3	72	3.88	.52
Institutional Adjustment	Class 1	636	3.63	.61	
	Class 2	527	4.14	.52	
	Class 3	72	4.55	.61	

※ Class 1: low-adaptive profile, Class 2: moderate profile, Class 3: well-adaptive profile

Table 7. Multiple comparisons of the three latent profiles representing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ollege adaptation

IV	DV	Pillai's Trace	F	df	Scheffé
Latent Classes	Self-Acceptance	.422***	220.18***	2	①<②<③
	Positive Relations		312.88***	2	①<②<③
	Autonomy		238.84***	2	①<②<③
	Environmental Mastery		242.08***	2	①<②<③
	Purpose in Life		276.20***	2	①<②<③
	Personal Growth	.340***	260.86***	2	①<②<③
	academic adjustment		162.85***	2	①<②<③
	social adjustment		245.28***	2	①<②<③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161.01***	2	①<②<③
	Institutional Adjustment		160.07***	2	①<②<③

* p<.05, ** p<.01, *** p<.001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격 5요인에 기초하여 교육대학교 학생의 잠재적 성격 특성을 확인하고, 성격 특성 잠재 집단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프로파일분석에 기초했을 때 교육대학교 학생의 성격 5요인 유형은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53] 3개 잠재 집단을 (1) 높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신경과민성 하, 나머지 성격 요인 상), (2) 중간 수준의 적응적 성격(성격 5요인 모두 중), (3) 낮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신경과민성 상, 나머지 성격 요인 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각 집단은 성격 5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평균값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준화된 점수(Z점수)에 기초했을 때, 높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은 성격 5요인 중 신경과민성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아래이며,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위에 속하는 유형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성격 유형은 정서 및 행동 문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정서와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을 보인다[54]. 중간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은 신경과민성이 0표준편차 아래이며,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이 0표준편차 위에 속하는 유형이다. 낮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은 성격 5요인 중 신경과민성이 0표준편차 위이며,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이 0표준편차 아래에 속하는 유형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낮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유형은 책임감, 성취지향성이 부족하고, 불안, 긴장,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잘 느끼는 특징을 보인다[8-10].

성격 5요인의 3개 잠재 집단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검증을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인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이 중간과 낮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보다, 중간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이 낮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는 성격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신경과민성이 낮을수록,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55]. 이는 신경과민성이 높을수록 우울과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삶의 부정적인 특성에 집중하는 반면, 외향성이 높을 경우 긍정적인 정서를 더 잘 지각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7-8]. 특히 많은 선행연구들은 신경과민성이 삶의 만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56]. 이는 신경과민성이 스트레스[57]와 정서적 불안정을 유발하기 때문이다[58]. 본 연구 결과는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성격 특성의 프로파일을 이해하고 학생 지도 및 상담을 하는 것이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신경과민성이 높고,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이 낮은 학생의 경우 대학생활 동안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학생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요인인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환경 적응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이 중간과 낮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보다, 중간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이 낮은 수준

의 적응적 성격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실성이 높을 경우 숙달지향목표를 보이며 [13], 성실성과 우호성이 높을 경우 친사회적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59]. 개방성은 지적 호기심 및 흥미와 연관되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60-61]. 반면 신경과민성이 높을수록 회피목표를 설정하는 모습을 보이며[13],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이 있다[7]. 즉, 높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집단은 신경과민성이 낮고,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데,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와 같은 성격 특성 프로파일을 갖는 것은 교육대학교에서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환경 적응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다수 성격과 심리적 특성,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등을 활용한 변인과 변인 간 영향 관계를 찾는 데 초점을 둔 변인 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 방법을 사용한 것과 달리[45], 개인 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 방법인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사용하여 성격 5요인에 기초한 잠재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갖는 집단을 확인하고, 심리적 안녕감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교육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교육대학교 학생의 성격 특성과 심리적 안녕감 및 대학생활적응 간 관련성에 대한 경험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실제적 의의가 있다. 또한 성격과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대다수 연구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성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성격이 심리적 안녕감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성격 5요인에 기초하여 교육대학교 학생의 잠재적 성격 특성을 확인하고, 성격 특성 잠재 집단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 및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성격 유형에 기초한 교육대학교 학생의 심

리적 안녕감과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방안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했다는 학문적, 실제적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개 교육대학교 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잠재프로파일분석이 표본 특성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교육대학교 학생을 표집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잠재 집단 특성이 교육대학교 학생에게 일반화 가능한 특성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하였는데, 교육대학교 학생의 성격 유형의 변화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자료를 활용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확인한 교육대학교 학생의 성격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적 측면의 예측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교육대학교 학생의 성격 유형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References

- [1] Ozer, D. J., Benet-Martinez, V., "Personality and the prediction of consequential outcom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57, pp.401-421, 2006.
DOI: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7.102904.190127>
- [2] Azucar, D., Marengo, D., Settanni, M., "Predicting the big 5 personality traits from digital footprints on social media: A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124, pp.150-159, 2018.
- [3] Leger, K. A., Charles, S. T., Turiano, N. A., Almeida, D. M., "Personality and stressor-related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111, No.6, pp.917-928, 2016.
- [4] Trapmann, S., Hell, B., Hirn, J. O. W., Schuler, H.,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g five and academic success at university", *Journal of Psychology*, Vol.215, No.2, pp.132-151, 2007.
DOI: <https://doi.org/10.1027/0044-3409.215.2.132>
- [5] John, O. P., Naumann, L. P., Soto, C. J., Paradigm shift to the integrativ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conceptual issues, In O. P. John, R. W. Robins, L. A. Pervi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3rd ed.)", pp.114-158, New York, NY: Guilford Press, 2008.
- [6] McCrae, R. R., Costa, P. T., The five-factor theory of personality, In O. P. John, R. W. Robin, L. A. Pervi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3rd ed.)", pp.159-181, New York, NY: Guilford Press, 2008.
- [7] Costa, P. T., McCrae, R. R., "Four ways five factors are basic",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13,

- No.6, pp.653-665, 1992.
DOI: [https://doi.org/10.1016/0191-8869\(92\)90236-1](https://doi.org/10.1016/0191-8869(92)90236-1)
- [8] Costa, P. T., McCrae, R. R., "Normal personality assessment in clinical practice: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Vol.4, No.1, pp.5-13, 1992.
DOI: <http://dx.doi.org/10.1037/1040-3590.4.1.5>
- [9] Costa, P. T., McCrae, R. R., The five-factor model, five-factor theory, and interpersonal psychology, In L. M. Horowitz, S. Strack (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ssessment, and therapeutic interventions", pp.91-104,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2011.
- [10] Goldberg, L. R.,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9, No.6, pp.1216-1229, 1990.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9.6.1216>
- [11] Diener, E., Lucas, R. E.,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 Kahneman, E. Diener, N. Schwart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pp.213-229,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99.
- [12] Kotov, R., Gamez, W., Schmidt, F., Watson, D., "Linking "big" personality traits to anxiety, depressive, and substance use disorder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136, pp.768-821, 2010.
DOI: <https://doi.org/10.1037/a0020327>
- [13] McCabe, K. O., van Yperen, N. W., Elliot, A. J., Verbraak, M., "Big five personality profiles of context-specific achievement goa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47, No.6, pp.698-707, 2013.
DOI: <https://doi.org/10.1016/j.jrp.2013.06.003>
- [14] Oshio, A., Taku, K., Hirano, M., Saeed, G., "Resilience and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127, pp.54-60, 2018.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8.01.048>
- [15] I. G. Park, S. M. Lee, B. Y. Choi, Y. Y. Jin, J. Y. Lee, "Relationship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academic burnout",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24, No.1, pp.81-93, 2010.
- [16] Komarraju, M., Karau, S. J., Schmeck, R. R., Advic, A.,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learning styles and academic achieve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51, No.4, pp.472-477, 2011.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1.04.019>
- [17] Ryff, C. 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 lif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4, No.4, pp.99-104, 1995.
DOI: <http://dx.doi.org/10.1111/1467-8721.ep10772395>
- [18] Keyes, C. L. M., Shmotkin, D., Ryff, C. D.,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2, pp.1007-1022, 2002.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82.6.1007>
- [19] Sun, J., Kaufman, S. B., Smillie, L. D., "Unique associations between big five links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reasons for retirement and the experience of being retire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48, pp.792-797, 2016.
- [20] Diener, E.,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Vol.55, No.1, pp.34-43, 2000.
- [21] Ryff, C. D.,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7, No.6, pp.1069-1081, 1989.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7.6.1069>
- [22] J. H. Yu, J. H. Cho, "Influencing of coworker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resilience of nurs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3, pp.733-743, 2018.
- [23] J. W. Woo, H. Y. Hong, "The Influence of family-friendly atmosphere in the organization, work-family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30, No.4, pp.933-957, 2011.
- [24] I. S. Oh, "Relations between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nd psychological problems among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 focus on mediation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5, No.4, pp.219-238, 2014.
- [25] S. M. Lee, J. H. Lim, "Effects of temperament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27, No.2, pp.121-135, 2015.
- [26] M. J. Lee, J. A. Choi, "The effect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well-being: Stress coping strategies as a mediating variab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4, No.6, pp.3739-3751, 2013.
- [27] Butkovic, A., Brkovic, I., Bratko, D., "Predicting wellbeing from personality in adolescents and older adult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13, pp.455-467, 2012.
- [28] Grant, S., Langan-Fox, J., Anglim, J., "The big five traits as predictors of subjectiv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sychological Reports*, Vol.105, No.1, pp.205-231, 2009.
DOI: <http://dx.doi.org/10.2466/pr0.105.1.205-231>
- [29] J. H. Kim, J. W. Do, "Case study for university freshmen adaptation",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18, No.1, pp.111-132, 2012.
- [30] S. Y. Kim, H. I.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basic need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adjustment of teachers'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10, No.2, pp.307-328, 2013.
- [31] G. P. Ko, M. Y. Sim, "A study on the mediation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self-efficacy on college students' unemployment stres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6, pp.379-391, 2015.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5.15.06.379>
- [32] J. U. Kim, J. H. Kim,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9, pp.248-259, 2013.

-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9.248>
- [33] H. S. Bang, W. S. Choi, S. H. Lim,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effect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 of tourism-related major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Vol.21, No.3, pp.1-28, 2017.
- [34] J. W. Lee, K. H. Lee, "The influence of strengths knowledge on undergraduate student's adaptation: Mediating effect of strengths use and career ident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8. No.1, 205-228, 2017.
- [35] J. H. Kim,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Psychological Type and Human Development*, Vol.17, No.1, pp.81-100, 2016.
- [36] J. Y. Park, S. E. Park, M. J. Park, "The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o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 pp.218-229, 2018.
- [37] J. Y. Song,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freshmen's adaptation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2, pp.335-345, 2017.
- [38] S. H. Park, E. K. Byun, "Effe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humor sense, and ego resilience on adjustment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0, pp.256-264, 2017.
- [39] H. R. Han, J. M. Le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oping and behavioral coping in the relationship of self-control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Focus on multi group analysis between male college students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5, No.3, pp.41-52, 2017.
- [40] C. K. Oh, H. Y.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ystem patterns and students' adaption to college: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maturity and perception of college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11, pp.517-543, 2015.
- [41] J. H. Oh,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0, pp.873-884, 2014.
- [42] K. A. Kang, H. Y. Cho,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3 pp.210-218,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3.210>
- [43] Şahin F., Çetin F., "The mediating role of general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perceived stress: A weekly assessment study", *Psychological Studies*. Vol.62, No.1, pp.35-46, 2017.
- [44] Leger, K. A., Charles, S. T., Turiano, N., Almeida, D. M., "Personality and stressor-related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111, No.6, pp.917-928, 2016.
DOI: <https://doi.org/10.1037/pspp0000083>
- [45] Pilarska, A., "Big-five personality and aspects of the self-concept: Variable- and person-centered approach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127, 107-113, 2018.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8.01.049>
- [46] Goldberg, L. R., "A broad-bandwidth, public 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ets of several five-factor model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Vol.7, pp.7-28, 1999.
- [47] Y. R. Lee, "The relation between burnout and the big five among Korean counsel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2006.
- [48] Ryff, C. D., Keyes, C. L. M.,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5, No.4, pp.719-727, 1995.
- [49] M. S. Kim, H. W. Kim, K. H. Cha, "Analyses o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being(PWB)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15, No.2, pp.19-39, 2001.
- [49] Baker, R. W., Siryk, B., "SACQ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ual",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89.
- [50] Muthén, L., Muthén, B., "Mplus: Statistical Analysis with Latent Variables (Version 7.1) [Computer software]", Los Angeles, CA: Author. 2013.
- [51] Merz, E. L., Roesch, S. C.,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Modeling trait interac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51, No.8, pp.915-919, 2011.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1.07.022>
- [52] Mertler, C., Vannatta, R., "Advanced and multivariate statistical methods: Practical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3rd ed.)", Los Angeles: Pyrczak, 2005.
- [53] Merz, E. L., Roesch, S. C.,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Modeling trait interac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51, pp.915-919, 2011.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1.07.022>
- [54] Favini, A., Gerbino, M., Eisenberg, N., Lunetti, C., Thartori, E., "Personality profile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A longitudinal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129, pp.119-125, 2018.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8.03.016>
- [55] Steel, P., Schmidt, J., Shultz, J., "R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134, pp.138-161, 2008.
DOI: <http://dx.doi.org/10.1037/0033-2909.134.1.138>
- [56] James, C., Bore, M., Zito, 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rsonality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Vol.30, No.4, pp.425-438, 2012.
DOI: <http://dx.doi.org/10.1177/0734282912449448>
- [57] Bruck, C. S., Allen, T. D., "The relationship between big five personality traits, negative affectivity, type A behavior, and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63, pp.457-472, 2003.
DOI: [http://dx.doi.org/10.1016/S0001-8791\(02\)00040-4](http://dx.doi.org/10.1016/S0001-8791(02)00040-4)

- [58] Finch, J. F., Baranik, L. E., Liu, Y., West, S. G., "Physical health,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nd persona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46, No.5, pp.537-545, 2012.
- [59] Courbalay, A., Deroche, T., Prigent, E., Chalabaev, A., Amorim, M. A., "Big five personality traits contribute to prosocial responses to others' pai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78, pp.94-99, 2015.
- [60] Berenbaum, H., Chow, P. I., Schoenleber, M., Flores, Jr., L. E., "Personality and pleasurable emo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101, pp.400-406, 2016.
- [61] Chamorro-Premuzic, T., Furnham, A., Lewis, M., "Personality and approaches to learning predict preference for different teaching method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17, pp.241 - 250, 2007.

연 은 모(Eun-Mo Yeon)

[정회원]



- 2007년 5월 : 버지니아 주립대 (Univ. of Virginia) 국제관계학 학사
-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 석사)
-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실수기반학습, 학습동기

이 명 숙(Myung-Sook Lee)

[정회원]



- 1986년 8월 : 켄트주립대학교(Kent State Univ.)(측정 및 평가 석사)
- 1990년 12월 : 켄트주립대학교 (Kent State Univ.)(교육심리학 철학박사)
- 1991년 3월 ~ 현재 : 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인지, 학습, 동기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인출